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5월 22일(금)

..(음력 4월 30일)..

Пятница

22 мая 2020г.

№ 20(11688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봄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다차에 심으려고 하는 꽃 모종.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참전용사에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기념, 남부사할린·쿠릴열도 해방 기념 메달 수여

사할린 및 쿠릴 해방에 참여한 대조국전쟁 참전 용사들(사할린 및 다른 지역 거주)에게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남부사할린 및 쿠릴 열도 해방 75주년 기념 메달을 수여한다. 이에 대한 령에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서명했다.

사할린주는 25개의 기념 메달과 그에 관한 증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수여식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행사에서 진행될 것이다.

사할린, 관광·무역업 재개

5월 18일부터 사할린주의 상점들과 쇼핑 센터들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관광 사업자와 도서관, 박물관은 제한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이와 같은 령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서명했다.

오하, 노글리키, 아니와 구역들을 제외하고 비식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은 주내 모든 구역들에서 영업을 재개한다. 이 지방자치체에서는 기업인이 쓰레기 수거를 맡은 지역 책임자와 협약을 맺는 즉시 영업 제한 규제가 풀린다. 쓰레기를 제때에 폐기를 매립지에 운송함으로써 전염병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시기에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청의 권고를 지키는 경우, 5월 18일부터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 기업인은 야외 투어를 조직할 수 있다.

도서관은 독서 발행을 재개했고 제한된 인원의 그룹은 가이드없이 박물관 견학을 할 수 있다.

주정부는 사할린주의 65세 이상의 주민과 만성 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계속 자가격리를 권고한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 업체, 어류 등 27만 6천 톤 어획

연방 수산청의 사할린관리국의 보고에 따르면 연초부터 수산물 획득량은 사할린주(州)에서 27만 6128.037톤에 이른다.

명태의 어획량 (17만6242,399톤)이 수산물 전체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만9885,638톤은 다른 종류의 해양 생물이다. 태평양 청어는 19,388톤, 대구는 15,006.613톤, 가자미는 4206톤을 어획했다.

수익성이 높은 주요 어류들 중에서 게가 총생산량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할린 업체들은 이미 5381여톤의 게를 어획했고 5월에만 어획량이 1716톤에 달한다.

사할린 수산업체들의 생산량 대부분이 여전히 수출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인해 해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수출량은 감소된 편이라고 러시아 수산청이 전했다.

주지사, 마카로브 구역 방문

지난 19일(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마카로브 구역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여러 공사장을 방문해 건설과 경제, 사회 분야 실태를 파악했다.

현재 마카로브에는 사할린의 큰 규모의 학교 하나가 공사중이다. 2019년 착공으로 내년 10월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학교는 4개 동으로 나뉘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가운데 350석의 강당, 2개 심리 상실, 2개 체육관 등, 초·중·고 학생 전용 건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카로브는 오래전부터 학교가 부족했다. 현재 도시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두 곳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두 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 학교에서 1 부제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 판데믹으로 인한 제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업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주지사는 빙상 경기장이 있는 일반 훈련 스포츠단지 건설도 점검했다. 시설 시운전은 2021년 초로 예정돼 있다. 현재 금속 구조물의 설치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이 스포츠센터에서는 약 250명의 학생들이 하키, 레슬링, 권투, 피트니스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단지에는 헬스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주지사는 이 구역의 첫 가스보일러 공사 현장도 방문했다. 보일러를 올 가을에 준공할 계획이다.

나탈리아 쿠프리나 주 주택공공 경리부 장관에 따르면 보일러는 우선 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할 계획이고, 2021년 가을에 마카로브구역이 가스화된 후 파이프포 공급하는 가스를 이용할 것이다.

주지사는 마카로브시 레닌그라드스카야 거리에 들어설 주택(30세대 주택 1동, 21세대 주택 1동) 건설 상황도 점검했다. 또 하나의 주택(24세대)은 위스토츠노예 마을에 짓고 있다. 이 주택들은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낙후 주택에 살던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리마렌코 주지사는 마카로브구역에서 폐기물 처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다.

마카로브 방문 일정은 주지사와 주정부 부처 관계자, 안드레이 크라스놉스키 마카로브 시장이 함께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사할린 주지사, 장관 3명 임명

사할린 주정부 3개 부처의 장관 대행을 지낸 분들이 공식적으로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령으로 아나스타시야 키티와는 교육부 장관으로, 드미트리 리스넵스키는 투자정책 장관으로, 게르만 쭈쭈코브는 동력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신임 장관 대행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 문제 해결 능력을 훌륭하게 입증했다"고 밝혔다.

아나스타시야 키티와는 2020년 3월 3일부터 주교육부 장관 대행을 맡았고 이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교육관리국 국장을 역임했다.

사할린 정부에 임명되기 전에 게르만 쭈쭈코브는 주내 에너지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그는 <러시아 주식회사 - 동부 에너지 시스템>의 수리 및 재구축 이사로서 섬지역 에너지시스템 재구축과 현대화 사업을 총괄했다. 사할린주 동력부는 주 전기에너지·가스청을 기반으로 하여 올해 2월에 창설되었다.

주투자정책부는 2020년 3월에 조직되었는데 핵심 목표는 사할린주에 개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이전에 사할린 주지사 고문직을 맡았던 드미트리 리스넵스키 주 투자정책부 장관은 사할린에서 일하기 전에 모스크바 주정부 산하 분석센터 개발사업국 국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22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본사 **배순신** 기자는 일부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벌어진 이래 최근 2개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린 유리 (30대, 가구 공장 매니저):

3월 말에 푸틴 대통령이 유급 휴무를 선포했을 때 우리 식구도 자가격리를 하고 식품 살 때만 외출했죠.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막내가 아직 3살이 안 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아내가 취직을 하게 돼서 아내가 개인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갇혀 지내면서, 다행히 우리집이 개인 주택이어서 마당에 나가 눈도 치우고, 놀기도 했죠.

학교 다니는 아들과 딸이 원격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미칠 것 같았어요. 수업과 관련해 문제도 많았고 인터넷 속도도 문제가 있었는데 차차 모두가 잘 해결되었어요. 애들도 원격수업 자체에 적응했구요. 자가 격리를 할 때 애들이랑 많이 놀고, 친척과 온라인으로 재미있게 가족들이 게임도 했습니다.

직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파는 데, 잘 아시다시피 식품 아닌 생활용품 판매가 금지돼 있어서 회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영업 중단으로

미니인터뷰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졌고 특히 중소기업이 재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그래도 좋은 미래가 기다린다고 기대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3세 이하 아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매월 5000루블리를 받게 되었고 대통령령으로 16세까지의 자녀 1인당 1만 루블리씩 일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아이 셋 다 아직 16세가 안 되어서 이 지원금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백 엘레나 (20대, 한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유학 중):

요즘 러시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났었죠? 한국에선 러시아보다 조금 더 빠르게 2월쯤에 코로나19가 터졌거든요. 그땐 부모님이 너무 많이 걱정하셔서 제가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할린에 있을 때 우리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개강했는데, 저는 러시아로 갈 때 너무 급하게 짐을 싸서 교재도 노트북도 안 챙기고 왔어요. 사할린에서는 한 달 있다가 3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그때는 비행기도 다니고 의무격리도 없었어요.

"최근 2개월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국 와서 온라인 공부하면서 학교 오프라인 개강을 기다렸는데 비대면 수업을 4월 16일까지 연장하고 또 다시 5월 12일까지 연장하고, 결국 이번 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만 받게 됐네요. 저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사물놀이를 하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단체 모임이 금지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연습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단계였고 곧 다 완화될 분위기였는데 또 다시 이태원 클럽을 통한 확진자들이 줄줄이 나와 난리가 났어요.

양 블라지미르 (40대, 회사 대표):

우리 회사는 주로 항공권 판매, 관광 관련 사업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관광과 항공권 판매 상태가 거의 중단되었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영업이죠. 자가 격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관광 상품 판매는 100%, 항공권 판매도 99% 떨어졌습니다. 댄 처음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회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이 사할린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 다. 많은 항공편이 취소된 마당(특히 직항)에 사할린으로 돌아오

는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관광객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한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자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고 하니 항공권을 판매하는 우리가 많이 바빠졌어요. 티켓을 다른 날짜로 교환하거나 아예 항공권 비용 환불 조치를 해야 했어요. 항공사들은 처음엔 항공료를 환불했지만 나중에는 현금 대신 승객이 앞으로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 인증서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만족치 못한 소비자들도 있어서 그들의 분노를 우리가 대신 받게 되었죠.

이 사태를 처리하고 나서 사무실 청소, 서류 정리 등을 했고요 직원들의 교육에 신경을 썼어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마지막 주일에는 사람들이 다시 조금씩 항공권 구입을 시작했어요. 조금씩 좋아졌지요.

이번에 가족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자녀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에도 신경을 썼지요.

박기순 (50대, 회사원):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석유가스프로젝트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휴무가 없었어요. 댄 처음엔 잠깐 재택 근무를 하다가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 코로나 사태 전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와 관련해 별도의 변동은 느끼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전한 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심리적으로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와 관련 상황 자체가 당황스러웠지요. 다 적응이 되고 상점 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친구와 친척들과 거의 만나지 못한 게 좀 힘들었구요. 인터넷, 특히 온라인 등에 대한 지식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거기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졌지요.

김시습 (70세):

지난 두 달간 어떻게 지냈나고요? 사실 이번 봄철에 자녀들의 초청에 의해 동남아 여행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 모든 계획이 유감스럽게 희망대로 되지 않고 취소되었죠. 코로나바이러스19 발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아르바이트도 조금 했는데 이번에는 집에 갇혀 있었어요. 낡은 개인 집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웠고, 요즘은 텃밭 일을 시작했죠. 좋은 걸 한 가지 말하자면 잠을 푹 잤어요. 걱정스러운 것은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상승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축된 돈으로 쌀을 좀 사놓았습니다. 루블리 가치가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석유가스 가격 상황도 좋지 않구요. 경제 상태가 걱정이죠.

이 드미트리 (19세, 대학생):

저는 하바롭스크에 있는 극동철도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니 사할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죠. 집에 있는게 편하죠.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할머니·할아버지 맥도 자주 가고 집안 일도 돕고 있어요. 물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있죠.

하바롭스크에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거의 1400명인데 사할린은 다행히도 순위상 거의 끝자리에 위치해 있고, 60명 정도라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부모, 조부모 걱정을 시키지 않도록 공공장소와 버스를 이용할 때 마스크를 꼭 쓰고 손도 자주 잘 씻고 코로나 방역을 위한 조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모저모

<과거로 돌아가기>사할린 퀘스트행사, 103명 참여

사할린 <과거로 돌아가기> 행사의 참가자는 103명이었다. 이 연례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 이니셔티브센터가 <승리>종합기념박물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 이 행사는 대조국전쟁 승리 7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14세에서 30세까지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지적 경연대회의 참가 조건에 따라 선수들은 주제에 따라 5개의 부분으로 나뉜 24개의 질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올바르게 답해야 했다.

참가자들은 주로 <승리의 무기>와 <가상 여행>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16세의 소피아 쿠르바토와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24개 질문 중 23개에 옳게 답했다.

2위와 3위는 17세의 마리아 표도로와 폴리나 니콜라이추크에게 돌아갔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 이니셔티브센터 홍보실이 전했다.

참가자들로 구성된 "Назад в прошлое"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ли 103 игрока

참가자들은 주로 <승리의 무기>와 <가상 여행>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16세의 소피아 쿠르바토와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24개 질문 중 23개에 옳게 답했다.

2위와 3위는 17세의 마리아 표도로와 폴리나 니콜라이추크에게 돌아갔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 이니셔티브센터 홍보실이 전했다.

Основную сложность у участников вызвали блоки "Оружие Победы" и "Виртуа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Лучше всех с заданиями справилась 16-летняя Софья Курбатова. Она ответила правильно на 23 из 24 вопросов.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а достались 17-летним Марии Фёдоровой и Полине Николайчу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ЦМИ.

<그린 피트니스>, 무료 온라인 수업에 초대

러시아 스포츠부의 지원을 받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 프로젝트 <그린 피트니스>를 시작했다. 전문 트레이너들이 이끄는 일련의 무료 온라인 수업은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제, 사할린 지역 주민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린 피트니스> 기획의 주요 부면은 주간 무료 스포츠 행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여가 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전에, 훈련은 공원과 정원, 광장, 산책로와 해변가 등 도시 공공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자가격리 체제로 인해 수업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된 것이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린 피트니스" 프로젝트 공식 페이지를 통해 매일 스포츠 강습에 참여할 수 있다. 하루 종일 트레이너들은 서로 다른 근육과 관절 운동을 목표로 최소 5가지를 통해 시범을 보여준다. 전체 일정은 공식 계정에도 게시된다.

«Зеленый фитнес» зовет на бесплатные онлайн-тренировки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Instagram при грантовой поддержке россий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запустили онлайн-проект «Зеленый фитнес». Серия бесплатных онлайн-заняти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тренеров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всех, кто хочет держать себя в хорошей форме — от молодежи до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Теперь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екту могут и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снов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роекта «Зеленый фитнес» — сохранение здоровья и активной жизненной позиции,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ация досуга граждан с помощью еженедельных бесплатны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о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пандемии тренировки проводили на открыт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парках и скверах, на площадях, набережных и пляжах. Режим самоизоляции не отменил занятия: их перенесли в интерне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ежедневным спортивным урокам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й странице проекта «Зеленый фитнес»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Instagram](#). В течение дня тренеры проводят не менее пяти различных тренировок,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разные группы мышц и суставов. Полное расписание также размещают в аккаунте.

중앙은행, 현금 자동입출금이 없는 마을 공개

사할린 주 인구의 약 96%가 금융 접근성이 좋은 '그린 존(녹색 지대)'에 살고 있다. 사할린 지역에 대한 이런 평가는 러시아 중앙은행 극동관리국 전문가들이 했다. 이들은 전자결제시스템과 현금 입출에 대한 접근성을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주민들은 은행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자 단말기를 이용해 카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섬지역 5개 자치체에서 은행서비스 접근성 수준은 평균 이하에 머물러 있다. 그 중에는 노골리키 구역의 두 마을 — 콤르보와 웬스코예, 벨로레치예(티몹스코예 구역), 파비노와 오지다예보(홈스크 구역)가 있다. 또한 두 마을 — 립노예(오하 구역)와 트람바우스(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구역) —에서 은행 서비스 제공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의 지부도 없고, 결제카드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되지 않고, 우체국 자체가 없고 인터넷 접속도 안 되는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마을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역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3면에 계속)

"꽃님이 할머니가 해내셨어요"

최고령 104세 코로나 '완치'에 포항의료원 "환호"

의료진, 67일간 대소변 받아내고 세끼 식사 챙기며 분투

"꽃님이 할머니가 이겨낼 줄 알았어요."

1915년 10월 태어나 올해 만 104세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최고령인 최상분 할머니가 15일 완치 판정을 받고 밝은 얼굴로 포항의료원을 떠났다. 지난 3월10일 확진돼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북 포항시 북구 경북도립 포항의료원에 입원한 지 67일만이다.

최 할머니는 이날 낮 12시 퇴원 절차를 끝내고 휠체어를 탄 채 의료원 내 음압격리병동 1층 문을 나섰다. 의료원 직원들은 병동 입구에 '건강하십시오'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기다렸다 할머니가 나오자 꽃다발을 건네며 퇴원을 축하했다.

최 할머니는 고령에다 마스크를 착용해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지만, 구급차에 올라타기까지 내내 밝은 표정을 보였다. 그는 치료를 받을 때도 의료진을 대할 때마다 꽃처럼 환하게 웃고 명랑해 '꽃님이 할머니'라는 애칭을 얻었다.

할머니가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 오르자 김정아 포항의료원 수간호사는 연신 얼굴을 만지며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라"는 인사말을 건넸다.

김기수 포항의료원 내과전문의는 "환자가 위낙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해 낙상과 세끼 식사를 챙기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며 "최고령 확진자의 완치 소식이 아직 코로나19와 싸우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숙 포항의료원 간호부장은 "대소변을 받아낼 때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며 "꽃님이 할머니가 젊은 사람도 힘들어하는 코로나를 이겨내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최 할머니는 퇴원 후 경북 경산시 서린요양원으로 돌아갔다. 자식으로 아들 셋을 뒀지만 모두 나이가 많아 병중인데다 할머니 또한 노환으로 거동이 불



104세로 국내 최고령 확진자인 최상분 할머니가 15일 입원 67일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던 경북도립 포항의료원 입구에서 주치의였던 김기수(오른쪽) 진료과장이 건넨 꽃다발을 들고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편해 지난 2012년부터 이곳에서 생활했다. 이날 손주 등 가족들은 포항의료원의 연락을 받고 요양원 앞에서 기다렸다 할머니를 맞았다.

할머니의 맏손자는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사할린에 일본 땅이었을 때 돈을 벌러 떠난 할아버지가 해방 후 러시아 땅이 되고 나서 돌아오지 못하자 홀로 아들 셋을 키우셨다"며 "많은 고생을 한 할머니의 신종 코로나 확진에 온 가족이 걱정했는데 완치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항의료원 의료진들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꽃아 드리고 할머니를 치료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다"며 "할머니가 신종 코로나를 이겨낸 건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고 전했다.

(출처: 한국일보, 2020.05.15)

이모저모

(2면의 계속)

2019년 말 조사로는, 사할린 주의 판매 및 서비스 매점들에 설치하는 전자 단말기 수는 11.5% 증가했고, 현재 섬지역에는 전자 카드 단말기 수는 거의 1만 5천 개 정도다. 이와 동시에 현금 자동 인출기 수량은 13대 감소된 가운데 올해 1월 1일 현재는 사할린 주 내에 현금 자동 인출기는 1153대이다.

현금 인출기 수 감소는 현금 수요 감소와 비현금 지급액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Центробанк назвал сахалинские села, жители которых не 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банкоматами

Около 96 процентов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вут в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зеленой зоне» финанс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Такую оценку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д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У Банка России. Эксперты оценили доступ к электронным платежным системам и обналачиванию средств как хороший или выше среднего: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банковский офис и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лектронным терминалом для операций по картам.

Тем не менее, в пя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ровень доступности банковских услуг остается ниже среднего. Это два села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 Комрво и Венское, Белоречье (Тымовской район), Павино и Ожидаево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Еще в двух селах — Рыбное (Охинский район) и Трамбаус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район) — уровень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банковскими услугами признан недостаточным. Там нет отделений финанс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е сформирован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приема платежных карт, отсутствуют почтовые отделения и доступ к интернету. Кроме того, эти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удалены от районных центров, гд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услуг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По итогам 2019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11,5 процента выросло число электронных терминалов, которые устанавливают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торговли и услуг.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х почти 15 тысяч. При этом объем банкоматов сократился на 13 штук: по данным на 1 янва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их в области было 1153. Сниж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банкоматов обусловлено

падением спроса на наличные деньги и ростом безналичных платежей.

서울,무인 차량 시범 운행 시작

서울시는 5월 12일 상암 문화광장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이 시범 사업에는 LG유플러스, 언맨드솔루션, 콘트롤웍스 등 7개 기업과 연세대, 한양대 등 2개 대학교가 참여했다.

지난해 6월 시범사업구역으로 상암동을 지정하고, 9월 부터 무인차량이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 다음 달, 서울 시내 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 10대(무인 버스 3대, 승용차 4대, 배달 로봇 3대)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 도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topis.seoul.go.kr>)에 무인차량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탑승 기회가 제공된다.

희망자들은 6호선·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하루 54회 출발하는 무인 셔틀버스를 탈 수 있다.

В Сеуле начнется движение беспилот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12 мая на площади культуры Санам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начала тестирования беспилот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тестиров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емь предприятий, среди которых LG Uplus, Unmanned Solution, SML, Control Works и другие, а также университеты Ёнсе и Ханьян.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айоне Санам уже была установлена площадка для тестирования, а с сентября проводились испыта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в Сеуле начнется регулярное движение по улицам трёх автобусов, четырёх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и трёх роботов-доставщиков.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беспилотный транспорт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также обычным жителям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сайте Сеульск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http://topis.seoul.go.kr>).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роехать на беспилотном автобусе, который отправляется 6 дней в неделю, кроме понедельника, и 54 раза в день от станции метро Digital Media City.

(사할린주, 러시아 및 외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학생이 좋아

동안이 환영받는 시대다. 그런데 일찍 노안이 된 사람이 많이 들어 동안이란 소리를 듣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십대에 삼십대의 얼굴이 될 지라도 오십대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면 나중에 동안 소리를 들 수 있으니까.



구청에 다녀온 아내 얼굴이 밝았다. 할아버지에게 길을 알려드렸더니 "학생, 고마워." 했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맞장구를 잘 쳐줘야 한다. 그 할아버지는 분명 할머니에게도 사랑받는 분일 것이다.

십여 년 쯤 전에 나도 학생 소리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다. 청바지에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끌고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아기를 안고 배웅을 나왔다. 아기가 우니까 옆집 할머니가 달래며 "왜 울어, 형 학교 간다고 울어?" 하셨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분위기도 이상해져서 되도록 말하지 않는다. 그 할머니는 정말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고 고맙다.

며칠 전, 학생에 가까운 호칭으로 나를 불러준 분이 있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모르는 할아버지였다. 누구인지, 어디서 사는지, 왜 전화번호가 전화기에 있는지 산꼭대기에서 골짜기를 향해 소리치듯 통화를 하다 보니 전날 동네 미장원에서 만난 인연이었다.

미장원에서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이 컴퓨터 박사나 휴대전화 벨소리를 크게 하는 법도 알지 않겠냐며 내게 전화기를 내밀었다. 소리를 가장 크게 키워도 할아버지는 작다고만 했다. "전화기를 잘 모르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 전화기와 똑 같은 내 전화기를 보여드렸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효도폰인 내 전화기를 보자 할아버지는 나를 더 이상 젊은이라 부르지 않고 '젊은 양반'이라 불렀다. 전화기의 여러 벨소리를 모두 실험한 끝에 둘이 내린 결론은 할아버지의 보청기 고장이었다. 그렇게 헤어진 할아버지와 다시 통화를 하니 반가웠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역시 "젊은 양반, 잘 지내시오."였다.

누군가 나를 '학생'이라 불러주는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알까? 무심코 부른 '학생'소리에 행복해 하는 중년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은 정말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광주에서 김남중

사할린주, 20개의 박물관

5월 18일은 국제 박물관의 날이다. 기념일을 맞아 사할린 통계국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표하였다.

사할린 주에는 20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거기에는 4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박물관들의 총 소장품 수량은 53만 2천 개에 달한다. 2019년에는 박물관들을 49만 5천여 명이 방문했는데 이들을 위해 1만여 건의 관람투어, 500여 개의 전시회, 그리고 1200 건의 대중행사를 마련했다.

규모가 가장 크고 방문객 수가 많은 박물관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있다. <승리(포베다)>종합기념박물관,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 주미술박물관, 주향토박물관, <사할린 섬>체호브 책 문학예술박물관 등이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물관들은 온라인 형식의 많은 흥미롭고 유익한 가상 투어, 전시회, 강의, 마스터 클래스, 퀴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집에 머물면서도 누구나 온라인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 박물관의 날의 맞아 러시아 박물관들은 전국 연례행사인 <박물관의 밤>을 진행한다. 올해는 특별히 이 행사가 대조국전쟁 전승 75주년을 기념한 행사였다고 사할린주 통계국 홍보실이 전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19 мая – День пионери

Как меня приняли в пионеры

В классе все шелестели новыми шелковыми галстуками. Всех приняли в пионеры.

Мне было десять лет, и я сидел на первой парте с большим октябрятским значком. Меня не принимали в пионеры. В аккурат перед этим я подрался...

Подрался я с Васей, самым крупным мальчиком в третьих классах. Лицо у него было перекошено немного и все его боялись.

И я тоже боялся его.. Из всех бицепсов у меня был только кадык на шее. И все. Васе все сходило с рук, он был хозяин положения...

Но вчера он из рогатки развалил воробья.. На куски. Летел воробей по своим делам.. а на землю падали уже части его, перья, пух...

Все видели во дворе, была перемена, все стояли на крыльце... Ни о чем не думая, я подошел к нему и, зажавшись, врезал... От страха холодело внизу живота и ныли зубы... Но я не мог стоять и смотреть... За что убивать птицу?!... В рогатке у него был кусок чугуна от трубы за котельной школы... Я бил его, пока не оттащили одноклассники...

И вот теперь, 25 мая, в последний учебный день, все шелестели галстуками, а я сидел и чувствовал катастрофу. Меня не принимали в пионеры. По дисциплине – два. И тут Галя Федотова, отличница, во всем отличница, она вдруг посмотрела на меня, почувствовала ситуацию и сказала при всех классной, что я не виноват... И все сразу закричали, что я не виноват в драке...

Наталья Николаевна долго смотрела на меня и сказала, что я принят в пионеры.. Под дружное ликование класса... Что-то вспомнилось сегодня... Никогда не вспоминал, а тут что-то щелкнуло...

Эпоха... Время... Человек...

Сергей ХАН
19 мая 2020 г.

P.S. Это был 1968 год. Только сдали новую школу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ке... Я в неё перебрался со старой вечерней школы, где учились начальные классы.

Ветеранам вручат памятные медали в честь 75-летия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подпис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рада предназначается ветеран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ринимавшим участие в боя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как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Планируется вручить 25 памятных меда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только же удостоверений к ним. Награжде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на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 честь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 серебряной медали изображен памятный знак, установленный на 50-й параллели, в шести километрах севернее села Рошино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Он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трехгранный штык, дуло винтовки и широко изогнутую стрел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юг – в сторону главного удара. На стреле – барельеф солдата, лавровые ветви и текст: «11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части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с этого рубежа начали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 исконно русской земли – от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Напомним, что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конце апреля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Дн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 инициативой повысить статус 3 сентября от памятной даты до дня воинской славы выступи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наторы от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ие депутаты 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ов законопроекта, он сохраняет историческую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победителей, увековечивает достойную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Медаль учреждена, чтобы отдать дань уважения великому подвигу, героизму и самоотверженности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Далёкое-близко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повесть

Ян Вон Сик

Участник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посвящается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7)

– Ты понимаешь, – начала Нина, – эти врачи – студенты 3-го курса мединститута. Им только по 20 лет. Прямо со студенческой скамьи на фронт попали. Они сейчас у операционных столов впервые кровь увидели, загорланили на глазах у раненых: «Как их резать, когда им так больно?!» Я их понимаю. Ты думаешь, я не плакала, когда впервые увидела раненых? Но я была медсестрой. А они-то – врачи, не имеют права распускать нервы. Скальпель в неумелых руках опасней немецкого осколка. Пришлось им устроить «холодный душ». Помнишь поговорку «Если потерял богатство, мало потерял. Если потерял совесть, много потерял, а если потерял мужество, значит, все потерял»? Сейчас терять мужество – это предательство. Я здесь не только сержант медслужбы. Я комсорг и отвечаю за весь госпиталь.

– Я вижу, ты здесь за главного. Командир! У нас говорят о тебе как о добром, заботливом человеке. Один солдат при всех сказал: «Нина Николаевна,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молоденькая, заменяет нам и добрую сестру, и нежную невесту, и заботливую мать!» Все не дожидается, когда ты будешь дежурить. Раненые говорят: «Нина Николаевна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нженер-экономист, а знает больше любого врача».

– Ты уж не преувеличивай, – возразила Нина, – я врачей заменять не могу. Если бы можно было прожить жизнь сначала, хотя бы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я бы пошла в медицинский. На фронте впервые пожалела, что не стала врачом, когда у меня на руках раненый умирал, а я не знала, как ему помочь...

– Нина, я сейчас сюда специально пришел, чтобы рассказать тебе наедине об одном человеке. В палате при всех не хочу.

– Что еще за секреты?

– Месяц назад на фронте встретился я с Геннадием Ханом. Он тоскует по тебе...

– Тоскует..., – усмехнулась Нина, – а мне даже письма не написал.

– У него же нет твоего адреса, куда посылать письма? Мне показал целую пачку. Говорит, когда он их перечитывает, будто с тобой разговаривает. Почему ты не сообщила ему адрес? Он только о тебе и думает.

– Когда? Я же в начале июля 1941 года в составе Первой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дивизии Москвы с Киевского вокзала отправилась прямо на фронт, – оправдывалась Нина, – мы с Геннадием попрощаться даже не успели. Думала, он меня найдет, если захочет. А вот как оказалось... Меня и родные не могут найти. Я напишу им из одного места, а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мы переезжаем – за фронтом. Да и дома у меня сейчас никого нет. Мама эвакуировалась. Только одно письмо от сестры получила. Подруги – кто где: одни на фронте, другие на трудовом фронте...

– Я могу тебе дать адрес Геннадия. Думаю, в ответ он сразу пришлет целую кипу писем. Жаль, не взял их с собой. Не думал, что у тебя буду лечиться.

– Он не был ранен? – озабоченно спросила Нина

– Нет. Возмужал, даже ростом выше стал. Подтянутый, настоящий летчик. Ас! Знаешь, Нина, он мне сказал, что только здесь, на фронте, понял, как любит тебя.

– Сказал, что любит меня? – переспросила Нина

– Да! Да! Любит! – горячо уверял Борис. – Как, говорит, я раньше не понял? А ведь могли видеться каждый день! После войны, если будем живы, я сразу же ей сделаю предложение...

– Я тоже по нему скучаю. Правда, нам часто некогда даже думать, только бы выспаться... – с тоской, задумчиво ответила Нина. А сама невольно думала о Геннадии. Представила его – «настоящего летчика, аса», как говорил Борис... В дверь деликатно постучала Аня.

– Нина Николаевна, вас ждут трое раненых, их выписал Иван Петрович. Сейчас они уезжают, хотя бы попрощаться.

– Позови их, Анечка. Ну, Борис, извини. Теперь ты у нас ходячий, заходи. Завтра я с утра дежурю. До свидания.

Борис, хромя, вышел. В дверь протиснулись два солдата и офицер.

– Мы здесь не загрязним? – извиняющимся голосом спросил офицер.

– Нет, нет. Я уже закончила. Заходите.

– Нина Николаевна, мы возвращаемся на фронт.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се! Мы никогда вас не забудем! Позвольте иногда вам писать?

– Обязательно пишите, – у Нины дрогнул голос, – буду рада знать, как ваши дела. Берегите себя. В добрый путь! Встретимся после победы! Нина пожала всем руки, помахала на прощанье.

Вечер после Победы

В один из послевоенных вечеров в квартире Елены в доме на окраине Москвы собрались старые друзья. Тепло встретили их хозяева – Елена и Сергей Иванович. Когда все уселись за круглым столом, Лена начала говорить:

– Не верится, что мы, спустя годы, вновь вместе, что можем шутить, смеяться, пить вино, и не будет бомбежки, и ночью не надо готовиться к эвакуации, и наутро никто из вас,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 больше не пойдет в атаку и не погибнет. Но прежде чем выпить за жизнь, давайте помянем тех, кто не вернулся. Погибли наши однокашники – Борис Иванович Ан и Геннадий Васильевич Хан, а также земляки-москвичи: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Ким Тхэ-хен, рабочий Гидон Ким, юрист Николай Ким, преподаватель физкультуры Александр Ким, – голос Лены от волнения пресекся.

– Прошу всех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наших товарищей, павших в боях за Родину смертью храбрых.

Все встали. Минута скорбного молчания. В комнате царит гробовая тишина, некоторые смахивают слезы платком.

– Война кончилась, – продолжала Лена, – на днях из Берлина вернулась наша Ниночка. В конце июня приехал Антон Ким из Кенигсберга. Еще раньше – медсестра Галя Хан, офицер-связист Григорий Ким, студент Михаил Пак. В 1943 году после тяжелого ранения с фронта пришел Петр Пак. Предлагаю поднять бокалы за наших героев-фронтовиков, за их боевые награды!

Все пьют, вспыхивает яркий свет. Беседа становится оживленной, веселее.

– Конечно, велика роль воинов в победе над жестоким врагом. Но мы не должны забывать тех, кто в тылу ковал оружие победы, днем и ночью проставлял у станков и мартеновских печей, на себе пахал колхозные поля, – сказала следом за Леной Нина. Я предлагаю выпить за тружеников, за кормильцев наших!

– Нина, ты всю войну прошла со своим медсанбатом, кого-нибудь из наших братьев-корейцев встретила на фронте? – спросил Михаил Пак.

– У нас в госпитале лежал Борис Ан, – начала рассказ Нина, – Мы с ним о многом говорили, но не думала тогда, что вижу его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Вылечился и снова ушел на передовую. Больше не встречала корейцев...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у тех, кто умирал у меня на руках. Привезли как-то солдатику, раненного осколком в живот... Врач был уверен, что часа не проживет, а он еще 12 часов боролся со смертью... До утра с ним сидела... Всего 18 лет... на рассвете просыпаюсь – глаза его вижу... Он меня мамой звал... Если бы я тогда уже не была инженером, то стала бы только врачом.

– Когда я сражался в Латвии, – стал говорить Антон Ким, – командиром нашего полка был кореец майор Павел Ким, 1909 года рождения. В одном из тяжелых боев он погиб. Да, еще в вагоне, когда возвращался из Германии, с нами ехал капитан саперных войск Александр Григорьевич Хван, 1909 года рождения, родом из Хокхоу (Корсаковка) на Суйфуне (Чупхун). Еще до войны он окончил в Ленинграде военно-инженерное училище, а в войну преподавал саперное дело в саратовском училище. В конце 1943 года его послали, наконец, на передовую. С 1941 года 8 рапортов написал, пока не удовлетворили его просьбу. Едва не погиб, когда переправу через Одер строили... Очень храбрый человек. Награжден двумя орденами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40-летия Движения 18 мая участвовали около 400 человек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40-летия Движения за демократию 18 мая впервые состоялась на площади Демократии, где раньше находилось старое здани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На ней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около 4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депута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члены семей погибших участников событий.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 ежегодно участвует в церемониях.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х основная цель –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за демократию.

Россия передала КНДР 25 тыс. тонн пшеницы в качеств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Россия передала КНДР 25 тыс. тонн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ой пшеницы в качеств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Как сообщается на странице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КНДР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Facebook, 14 мая посол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побывал в порту Нампхо, куда доставлено зерно. В связи со строгими карантинными мерами экипаж судна был помещён под наблюдение врачей, а разгрузка ведётся в изолированной зоне. По данным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ОН, не менее 10 млн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испытывают дефицит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ссия передала КНДР в качеств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около 8 тыс. тонн пшеницы.

Повторное заражение вирусом COVID-19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 опасности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К ослабят жёстки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для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повторно дали полож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на вирус COVID-19, поскольку такие пациенты не представляют опаснос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Ён Тхэ Хо. Отметив, что с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выявлены 447 случаев повторного заражения, он предположил,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это вызвано несовершенством существующих методов диагностики, когда за полноценный вирус принимались остатки мёртвого вируса. Всем, кто вылечился,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вернуться к обычным занятиям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ход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тесты или подвергаться карантину.

Занятия в школах РК начались поэтапно с 20 мая

20 мая, как 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возобновились занятия в школах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Учитывая сокращение числа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вирусом COVID-19,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сочли не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дальнейший перенос начала занят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20 мая начались занятия у учеников третьих классов старших школ. Неделю спустя, 27 мая, уроки начнутся для учеников вторых классов старших школ, третьих классов средних школ, первых и вторых классов начальных школ. 3 июня к занятиям приступят ученики первых классов старших школ, вторых классов средних школ, третьих и четвертых классов начальных школ. 8 июня начнутся занятия в первых классах средних школ, пятых и шестых классах начальных школ.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новый очаг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COVID-19 в ночных клубах сеульского района Итхэвон не влияет на эпидем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школах. Между тем, многие родители проявляют озабоч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возможност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в школах. Петицию с требованием вновь отложить начало занятий подписали более 220 тыс. человек. В этой связи власти подготовили меры,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ежедневный контроль температуры, немедленный карантин в случае выявления симптомов заболевания,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 сокращения учебного времени.

Число безработных в РК с января по апрель достигло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число безработных в РК за первые четыре меся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достигло рекордного уровня.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отчёте,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депутат Чху Гён Хо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Объединённой партии будущего, в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апрель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примерно 2 млн 80 тыс. безработных.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 начала сбора в 2000 году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о занятости. За первые четыре меся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1 млн 50 тыс. человек потеряли работу в результате сокращения персонала или закрытия компаний.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выше, чем во время миров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2008 года. (RKI)

Почему начали перестраивать главную площадь Пхеньяна

На главной площади Пхеньяна, которая носит имя Ким Ир Сена и где проходят военные парады и прочие важнейшие мероприятия КНДР, ведутся масштабные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 ходе которых сняли портреты двух покойных вождей - Ким Ир Сена и Ким Чен Ир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англоязычное интернет-издание NK News,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ееся на новостях про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издания, Страна чучхе готовится к крупным празднич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посвященным 75-летию юбилею основания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ТПК).

Как отмечает NK News, ссылаясь на анализ полученных со спутников снимков,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дъезды к площади Ким Ир Сена перекрыты, вокруг возведены заборы, которые закрывают для прохожих обзор того, что делается внутри. Со снимков видно, что главная трибуна, где обычно стоит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во главе с Ким Чен Ыном во время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емонтирована, плакаты с изображениями Ким Ир Сена и Ким Чен Ира, которые были на стене, сняты, а прилегающие к главной трибуне места также перестраиваются. В целом, на площади идут активные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Как отмечает издание,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на этой площади существ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произошли в 2012 г., когда к портрету Ким Ир Сена был добавлен портрет Ким Чен Ира, который умер в конце 2011 г. В этой связи не исключается, что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и третий портрет - нынешнего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Впрочем,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сомневаются в этом.

Бесспорным же остается факт масштабн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 площади,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нят ее облик. Все э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о-



исходит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75-летию юбилею основания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оторый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10 ок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в КНДР пройдут пышные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деланные ранее снимки из космоса показали, что на одной из площадей на окраине Пхеньяна, которая по размерам копирует площадь им. Ким Ир Сена, также начались какие-то работы по расширению. Это было интерпретировано как возможное начало процесса подготовки к репетициям праздничного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ТПК.

Напомним, что в 2015 г. КНДР пышно отметила 70-летний юбилей ТПК, проведя парад, демонстрацию, факельное шествие, крупный концерт, народные гуляния и салют. Для освещения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сотни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104-летняя кореянка победила коронавирус

Чхве Сан Бун стала самым возрастным в Южной Корее человеком, который смог победить коронавирус. Ее возраст - 104 год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линике города Пхохан, 15 мая они выписали пациентку Чхве, признав, что она смогла перебороть коронавирус. Несколько проведенных анализов на наличие COVID-19 дали отрица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эта победа далась не так просто. Пожилая женщина провела в клинике более двух месяцев, начиная с 10 марта. В больницу Пхохана она была доставлена из дома престарелых в Кенсане, где был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один из крупных очагов коронавируса. Женщине пришлось пережить кризисное состояние, когда дыхание поддерживалось при помощи аппарата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ентиляции легких. У нее также был энтерит и воспаление легких. Однако в итоге организм сумел справиться с болезнями.

Отметим, что коронавирус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пасен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Если в средн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летальность составляет менее трех процен-

тов, то в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старше 80 лет от COVID-19 умирает более 25 процентов пациентов. Сказывается общая слабость организма, а также наличие других заболеваний, которые делают пожилых людей более уязвимыми. В этом плане особенно радует, что женщина, который более 100 лет, смогла победить коронавирус.

Тем времен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должает уменьшаться общее число людей, у которых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диагностирован COVID-19.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олночь 15 мая, в стране было выявлено 27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доведя общее число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до 11 018. При этом за то же время выздоровело 59 человек. Всего ж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ыздоровело 9 821 человек или более 89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некогда заболевших. Численность носител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сократилась на 32 человека до 937. За сутки, к счастью, не было новых смертей от COVID-19, оставив совокупный показатель на прежнем уровне – 260 человек. Летальность – 2,36 процен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Подтверждение заявок на поездки в Пханмунчжом будет сокращено до трёх дней

Процесс подтверждения заявок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на поездки в пограничный пункт Пханмунчжом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будет сокращён с нынешних двух недель до трёх дней.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достигнута с Командованием войск ООН, которое контролирует доступ к пограничной зоне. 14-дневный процесс обработки заявок граждан РК был введён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траны более 10 лет назад. Между тем,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а это требуется в среднем 3 дн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назвали позитивной, тем более, что поездки в Пханмунчжом стали особенно популярными посл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522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второй этап снятия ограничений, введенных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С 18 ма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зрешено работать магазинам и торговым центрам. В ограниченном режиме возобновят деятельность туроператоры, библиотеки и музе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подпис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ъекты торговли, в которых реализуют не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открываются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Охин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и Анивского. В эт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граничения снимут, как только вс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заключат договоры на вывоз мусора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оператором. Коммунальные отходы являются источником инфекций, поэтому их своевременное размещение на полигонах имеет особую значимость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С 18 мая компаниям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работающим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разрешено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экскурсии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и при соблюдении рекомендаций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Библиотеки региона возобновят выдачу книг. А музеи разрешено посещать ограниченными группами без сопровождения гида.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тарше 65 лет, а также граждан, имеющих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режим самоизоляции теперь является рекомендательны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здают систему утилизации строительных отходов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покрышек

Специальные площадки должны организовать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до 25 мая. Речь об этом шла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Разрабатывая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борьбе с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ми свалками, мы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строителям сейчас не просто избавляться от мусора. Поскольку полигоны есть не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Утилизацией шин и вовсе занимаются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А наша задача не допустить того, чтобы всё это оказывалось в лесу, в поле или на берегу моря.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как раз и создаем такую систему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Главное, чтобы наши острова были чистыми,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инимать строительный мусор сегодня могут лишь в восьми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Полигоны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работают в Тымов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Холмском, Смирно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Охинском районах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з ост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ынуждены вывозить отходы в соседни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главам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оручено до 25 мая выделить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где обустраивают площадки по приему, хранению и переработке строительного мусора и автошин. Их передадут в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 Размер каждой площадки составит 2,5-3 гектара, на Курилах можно меньше. Обязателен автомобильный подъезд, вид использования — земл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Участок, где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строительные отходы, должен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экологическим нормам. К тому же все это не должно мешать комфортному проживанию людей.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такие площадки в промзоне,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Начать временный прием строительного мусора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шин на специаль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должны с 8 июня. А до конца первого летнего месяца министерству ЖКХ региона поручено разработать программу полноценного обустройства площадок с установкой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переработке строительного мусора.

Более 400 строительных объек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контролируют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Для этог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здана и запущена платформа строительных сервисов. Она позволяет собир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ход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воров, возведения зданий и сооружений. Подрядчики, волонтер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блачной технологией с помощью компьютера и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практикой уже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Об этом зампред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рассказал в ходе всероссий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цифровизации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Её провели Минстрой России и Националь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строителей.

— Сервис помогает планировать работы,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их проведение и записывать всю информацию об объектах. Это выглядит так. Прораб, находясь на площадке, открывает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В программу он вносит разли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ход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апример, об этапе работ или объеме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Также система позволяет вести фотофиксацию. Все данные собираются на

общей платформе и доступны для нас в любое время. За некоторыми объектами мы следим в ежедневном режиме, за остальными — в еженедельном, — рассказал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Цифровой ресурс предоставляет график и статус выполн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дается прогноз завершения работ, если они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 текущем темпе.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зработа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урс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ервиса — его прошли все подрядчик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системе. Кроме того, цифровым технологиям в регионе обучают студентов среднего и выс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 этом свои знания учащиеся могут сразу применить на практике. К примеру, студенты строительного техникума с помощью системы оценивают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и комфортности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роверяют качество выполнения работ.

Сахалинских авторов приглашают побороться за общероссийскую литературную премию имени Арсеньева

Прием работ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премияарсеньева.рф продлится до 30 июня. В этом году,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соискатели активнее, чем в прошлом, присылают произведения о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 конкурс можно предложить романы, повести, документальную прозу и мемуары.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авторов значения не имеет. Обяза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 произведения должны быть написан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о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Литературный конкурс призван не только наградить победителей и рассказать о современных авторах, но и привлечь культурный интерес к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как к территории приоритетного развития XXI века.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19 ма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ТАСС объявлен состав жюри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имени Арсеньева. Среди спикеров —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культуре Владимир Толстой, заместитель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Григорий Куранов, ректор Литератур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Горького Алексей Варламов, музыкант Александр Ф. Скляр и куратор премии Вячеслав Коновалов.

Отметим, что второй сезон премии стартовал 1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30 сентября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длинный список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беду, 30 ноября — список финалистов — шорт-лист.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назовут по традиции в декабре — на Дня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В первом сезоне премии соискатели прислали около 200 произведений о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Лауреатами стали Андрей Геласимов («Роза Ветров» — номинация «Длинная проза»), Анатолий Слепцов («Честные люди. Быков мыс» — номинация «Короткая проза»), Анастасия Строкина («Кит плывет на север» — номинация «Проза для детей»). Лауреатом в номинации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ой культур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бъявили Василия Авченко — культового приморского писателя, автора биографической книги «Фадеев» из серии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Общеросси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ная премия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мени В. К. Арсеньева была учрежде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я Трутне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обновленный МФЦ

С 18 мая после ремонта начало работать отделение на Комсомольской, 163.

Офис стал просторнее, тепер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услуг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двое больше посетителей. Количество окон увеличилось в два раза — с 12 до 24-х. Четыре окна работают на выдачу документов.

— Мы отметили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отделения на «Луче». У него хорошее расположение, посетителей всегда много. Для удобства наших клиентов и во избежание очередей мы расширили.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и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МФЦ Полина Исянова.

Режим работы МФЦ не изменился (в понедельник, вторник, четверг и пятницу — с 9 до 19 часов, в среду — до 20 часов, в субботу — до 18 часов, в воскресенье — до 15 часов). Сегодня строго соблюдаются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е меры, прием граждан ведетс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сетителей будут обслуживать еще и в порядке электронной очереди.

В отделени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широкий перечен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На месте можно сделать фото на докумен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но будет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 ведущих вузов страны

У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должна появиться возможность обучаться в высокорейтинговых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России, при этом являясь студентами главного остров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ля этого планируют запустить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СахГУ до 2025 года. Такой вопрос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д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получени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Это принципиальная позиция. Чтобы студенты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два диплома —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ого, но и ведущего вуза страны, не покидая пределов региона. Задача — уменьшить отток молодежи. Мы должны давать образование с акцентом на мировую повестку и с гарантией последующ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ыпускни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 базе СахГУ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вивать цифровой мультиуниверситет, запустив совместную программу с ведущими вузами страны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двойных дипломов. Сред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артнеров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Росси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нефти и газа имени Губкина, НИЯУ МИФИ, МГУ имени Ломоносова, ДВО РАН, ИТМО,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а также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Газпром, Роснефть, Росатом, Ростелеком, Яндекс и др.

Авторы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вуза ставят целью удвоить количество аспирантов, которые защищают свои работы в регионе и остаются в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м составе.

При этом позиции СахГУ в рейтинге вузов должны быть усилены на 100 пунктов и созданы современ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фили. Среди них: управл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ью добычи, нефтепереработки и сбыта; компьютерная лингвистика;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получила развитие во всем мире, нейропедагогика; социальная и цифровая урбанистика; изыскани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опасных зонах; международная и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цифровая логистика.

— Чтобы всё это осуществить, надо изменить психологию изолированности. Студенты должн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соврем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Акцент ставим на цифровизации обучения. Практика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за этим будущее,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В предстоящие месяцы в главном островном вузе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аудит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 и онлайн-курсов, сформировать перечень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офилей. Впоследствии это понадобится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программ «двух дипломов».

Началась выкатка блок-секций для сборки парома на линии «Сахалин-материк»

Постройку двух серийных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судов ледового класса продолжает Амурский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 Для второго парома,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имя «Василий Ощепков», судостроителям предстоит вывести из цеха на открытый стапель восемь блоков. Сварка корпуса завершится к 12 июля. Далее — в начале августа стартует монтаж линии вала. Спустить на воду судно планируют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Первый сформированный и максимально насыщенный блок будущего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ого автомобильно-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арома покинул строительный эллинг 15 мая. На него уже погружены якорно-швартовые лебедки, оборудование общекорабельной системы, вентиляторы, кондиционеры, установлены фундаменты под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дводная часть блок-секции полностью окрашена, надводная — на два слоя, окончательная окраска предстоит после сборки корпуса и спуска судна на воду.

— Учитыва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паромной переправы Ванино-Холмск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очень ждем окончания постройки двух паромов. Это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сит надежность сообщения острова с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ью страны, 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гарантии для перевозки пассажиров и грузов,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 Уже спущен на воду корпус первого парома. Надеемся, что и второе судно будет строиться в рамках обозначенного графика.

Напомни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паромов для линии Ванино-Холмск стартовало на Амурском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м заводе в 2017 году. Длина каждого — 131 метр, ширина — 23 метра.

Паромы способны перевозить до 32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вагонов или 27 автосоставов, а также 9 легк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ассажироместимость — 200 человек. Паромы смогут выполнять рейсы в слож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ях и двигаться во льдах толщиной до одного метра.

Первому из них присвоено имя бывшего директора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завода Александра Деева, второй назван в честь Василия Ощепкова,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а российского дзюдо, который родился и вырос на Сахалине.

Срок сдачи «Александра Деева» и «Василия Ощепкова» — 2022 год. В результате, на линии «Ванино-Холмск» будет работать 5 паромов — 3 типа «Сахалин» и 2 новейши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2020년「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에게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내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외동포 문학 공모전에 재외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금년에는 입양수기 부문을 신설하여 입양동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오니, 해외입양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및 주관 : 재외동포재단
- 후원 : 외교부
1. 응모 자격
- 성인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 청소년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 초등 부문 :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중·고등 부문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성인), 최우수상(청소년)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 불가
- 입양동포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을 취득한 입양동포 및 자녀
2. 공모 부문 및 주제
- 성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 시·단편소설 : 자유주제

－ 체험수기 : 이민과 정착 과정 속에서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

○ 청소년(글짓기)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에서의 일화 소개

－ 한국 방문 및 한국어 학습 경험담

－ 기타 자유로운 주제(자랑스러운 한국인, 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낀 체험담 등)

○ 입양동포(입양수기)

－ 본인, 가족의 정체성 확립 여정 및 '뿌리' 탐색기

－ 기타 자유로운 주제(가족상봉, 한국 방문 경험담 등)
3. 부문별 원고 분량

- 재외공관에 등록된 비정규(주말) 한글학교 대상
- 청소년 부문에 응모한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한글학교에 수여
- 학교별 본심 진출작품수 및 수상작품수를 점수화하여 선정
5. 신청 및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0.4.1(수) ~ 5.31(일) 23:59, 한국시간 기준(마감일 접수 요망)
- 나. 접수방법 :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http://www.korean.net) 통해 온라인 접수
- 코리아넷 공지사항 또는 팝업존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 하여 첨부파일로 작품 제출

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코리아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하기 클릭

○ 응모작품 :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 공지사항에서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 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 ※ 첨부파일명은 응모자명, 응모분야, 작품명 순으로 기재
- ※ 재외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체류자격 증빙서류의 경우 **수상자에 한해 추후 별도 제출**(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유번호 등 삭제 요망)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 발표 : 8월 중 수상자에 한 해 개별 통보, 코리아넷 홈페이지 게시

○ 시상 : 수상자는 거주국 관할공관에서 전수식 개최 예정
6. 기타 및 유의사항
- 응모자는 신예·기성작가 등 제한 없이 응모자격 해당자에 한하며, 장르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의 분야에 복수응모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신청서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미흡할 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서류와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수상자의 경우 <1>의 응모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증빙서류를 수상자 발표(개별 통지) 후 2주일 내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혹은 자격 미달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 해당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 국내외 여타 기관 또는 매체(신문, 인터넷매체 등)에 기발표 작품

－ 표절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 작품

－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모든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나,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보상은 상금으로 대체합니다.

○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수상작은 수상작품집 책자(비매품)로 출간되며, 추후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활용 예정

☐ 문의 :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박한솔 직원

○ 전 화 : +82-64-786-0247 / 이메일 : culture@okf.or.kr
(재외동포재단 제공)

- ※ 작품응모서식은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 매수는 원고지 또는 작품응모서식 기준 중 한 가지 반드시 충족
- ※ 원고 분량 80% 미만 또는 150% 이상은 탈락

4. 심사 및 시상내역
-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예심 → (3차) 본심

－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시상내역 : 총 34명 및 한글학교 2개교 선정, 총 상금 사천일백삼십만원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구 분	상 별	인원(명)	시상 내역	비 고
성 인(3개 부문) [시/단편소설/체험 수기]	대 상	3	삼백만원, 상패	부문별 1인
	우수상	6	이백만원, 상패	부문별 2인
	가 작	9	오십만원, 상패	부문별 3인
청소년(2개 부문) [중·고생/초등]	최우수상	2	일백만원, 상패	부문별 1인
	우수상	4	오십만원, 상패	부문별 2인
	장려상	6	삼십만원, 상패	부문별 3인
입양동포 [입양수기]	대 상	1	삼백만원, 상패	
	우수상	1	이백만원, 상패	
	가 작	2	오십만원, 상패	
한글학교	특별상	2개교	이백만원, 상패	
총 계			사천일백삼십만원	

※ '한글학교 특별상'

사할린, 주니어 알파인스키 세계선수권대회 유치 신청

러시아 알파인스키협회가 2024년 사할린 지역에서 세계 청소년 알파인스키 선수권대회 개최에 대한 신청안을 제출했다. 지난 20일(수) 사할린주 정부 회의에서 알파인스키협회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신청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주니어 알파인스키 세계선수권대회는 21세 이하 청소년선수들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스포츠대회다. 이 대회에는 전통적으로 30여 개국에서 250명 이상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다. 선수들은 올림픽 종목인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활강, 복합, 단체전으로 경쟁한다.

"사할린 지역은 국제 수준의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조직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충분한 스포츠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선수들을 다시 섬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세르게이 나우모브 주 정부 부수상이 전했다.

전통적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위치한 <고르니 위스두호> 스포츠관광단지가 알파인스키 대회 개최장이 된다. 이곳에서 이미 6년째 극동 대륙컵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연초에는 세계 장애인 알파인 스키 월드컵도 개최했다.

(주정부 보도자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계시는 석혜경 선생님께 드리는 축하문

85회 생신을 맞이하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사에서 근 30여년간 훌륭한 번역원으로 계시고 15년 이상 수정과 교정을 꼼꼼하게 봐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저희 신문에 대한 선생님의 애정과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연금생활을 누리시면서도 우리 신문을 잊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 덕담도 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한민족지가 잘 발행되도록 항상 지켜주고 계십니다. 항상 귀감이 되어 주신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늘 건승하시고 손자녀들의 사랑 속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한국 안산에 계시는 김종수 선생님께 드리는 축하문

저희 신문사에서 70-80년대에 거의 20년간 편집국 국장으로 계셨던 김종수 선생님의 85회 생신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책임감이 높으신 분으로서, 수준 높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계신 김종수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사할린 한민족지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으시고 새고려신문 발행일을 늘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모국에서 85회 생신을 맞이하신 김종수 선생님께서 행복한 여생을 누리시고, 귀택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Рекламы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йт (주필) 배 익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